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박현정(朴炫貞)**

김전옥(金典屋)***

손윤희(孫淪嬉)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 추이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아동패널(Korean Youth and Children Panel Survey)의 중1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연도에 걸쳐 반복 측정된 2,218명의 데이터를 2수준 다층 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였다. 둘째, 공동체 의식의 초기치(중1 시점)는 여학생일수록, 중1 시점의 연간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양육 태도가 애정형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에는 여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시점에서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가 관련 청소년 정책에 가지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동체 의식, 체험활동시간, 다층 성장모형, 시간의존적 변수

* 이 논문은 제 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제 1 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인지적·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하여 복잡한 사고와 추론이 가능해지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도기일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직장 혹은 지역사회 체험 등과 같은 확장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경험은 그 당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미래의 삶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의 경험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Crockett & Crouter, 2014). 이처럼 청소년기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증가(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하거나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통계청, 2013)이라는 현상은 현재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제에 관한 많은 국내 연구들은 청소년기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접근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위축 등 내현화 문제와 폭력행동, 범법행위 등 외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제안하였다(우유라, 노충래, 2014; 장혜림, 정익중, 2013; 한대동, 오경희, 2013). 또한 15 개정 교육과정(NCIC, 2015)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의 일환으로 다양한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을 제안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김옥순, 2006). 공동체 의식은 인정, 우애, 소속감 등의 인간 본연의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더욱이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은 사회통합에 있어 필수요소로 인식되어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이혜영, 1997; 김성훈, 2015; 문수경, 2015). 그러나 국내외의 조사 결과들은 시민사회와 국가까지 범위가 확장된 공동체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태도와 공동체 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2009년 제2차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지식은 38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학교 내외의 공동체 참여, 국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시민기관 신뢰 등과 같은 정서행동영역은 조사 참여국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여 지식수준과 인식 및 참여 수준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5년 청소년 통계는 청소년들의 단체 활동 참여와 기부 활동 참여가 각각 30퍼센트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종합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공동체의 개념 및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인지적 영역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높은 지식수준은 정서적 영역의 태도 및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 공동체 의식의 형성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우유라, 노충래, 2014), 공동체 의식이 높은 청소년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폭력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한대동, 오경희, 2013), 공동체 의식이 높은 학급에서는 집단따돌림 관여 행동이 적게 나타났다(오지원, 2013). 위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기의 내현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공동체 의식과 청소년기 발달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행 연구들은 공동체 의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주목해 왔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공동체 의식에 성별(김성훈, 2015), 체험활동시간(박현정, 이진실, 이용석, 2015; 김혜진, 2014; 한은영, 김미강, 2013; 박재숙, 2010; 고관우, 남진열, 2011),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김태준 외,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방식(유난숙, 2015; 장소영, 2012; Fletcher et al., 2000; Hart et al., 1999), 또래 관계 및 애착(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장소영, 2012; 김상미, 남진열, 2011), 학교적응능력(강가영, 장유미, 2013; 김상미, 남진열, 2011), 교사와의 관계(오미섭, 2013)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공동체 의식이 개인, 가정, 또래, 학교 등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행연구들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생활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하고(박재숙, 2010),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할 수 있는 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연구들은 횡단적 측면에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추적할 수 없다.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에 주목하여 공동체 의식의 발달체적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 역시 존재하나(김성훈, 2015; 문수경, 2015), 이러한 연구들은 공동체 의식과 영향요인들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구인이며, 특히 학년이 높아지고 학교급이 상승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 관련 변수들

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점에 따라 영향 요인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여 선행연구들을 확장하고자 하며, 분석을 위하여 시간 의존적 변수를 투입한 다층 성장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과 영향요인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체 의식의 개념

공동체 의식은 연구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나, 다양한 인구 집단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영향력 있는 구인으로 수용되어 왔다(Long & Perkins, 2007; Chavis & Pretty, 1999).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면서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개념 역시 함께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공동체를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유대와 사회적 상호작용 망을 형성하는 집단으로 보고 지역적인 특징을 강조하였으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리적 이동의 한계가 사라지면서 공동체 의식의 관계적·심리적 측면이 강조되었다(박정서, 2012; Mannarini & Fedi, 2009).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 의식을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이 서로와 집단에게 중요하다는 느낌, 공동체에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이해영(1997)은 공동체 의식이 집단 구성원이 집단에 대한 귀속을 자각하는 것이자 집단에서 찾게 되는 자기 동일성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연대 체험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집단의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박가나(2009) 역시 공동체 의식을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한 집단의식이자,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실천적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동체 의식은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하며, 소속감을 공통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역시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주 시민 의식 연구(권혜원, 2004)에 근거하여, 도움주기, 봉사활동, 기부 및 환경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공동체 의식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발달은 성인기의 시민성과 사회참여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발달 과정으로(허인숙, 이정현, 2004),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시민성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또한, 교과교육에 공동체 의식 관련 내용을 반영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실천 지향적인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참여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한다(임지연, 2014). 이처럼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발달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영향요인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선행연구들은 공동체 의식은 변화 가능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학습에 의하여 성장하는 심리적 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박재숙, 2010; 이해영, 1997).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문수경(2015)의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하며, 학교적응과 봉사활동 만족도와 함께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2015)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관련 변수 등 예측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시점 변수들이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상술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하며, 동시에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특성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되어있는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 및 발달되며(박재숙, 2010), 이때 청소년이 소속될 수 있는 집단은 가정, 또래집단, 학교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특성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개인특성요인으로는 성별 및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별의 경우, 김성훈(2015)의 연구를 토대로 또래, 가정, 학교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공동체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의 경우, 고관우, 남진열(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과학정보활동, 자기개발활동, 문화예술활동이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은영, 김미강(2013)의 연구에서는 교류·봉사·환경보존활동으로 구성된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박현정 외, 2015; 김혜진, 2014; 박재숙, 2010).

위에서 언급한 개인특성요인들과 함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를 포함하는 가정요인이 공동체 의식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시민 행동의 양상이 높게 나타났으며(김태준 외, 2010), 이는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의견을 인지하고 일관적으로 반응해주는 수용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는 보다 높은 공동체 의식을 나타낸다(Fletcher et al., 2000; Hart et al., 1999).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 중 애정과 관련된 양육방식이 다른 요인보다 공동체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난숙, 2015; 홍재화, 2004)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애정 관련 특성을 보이는 경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며(장소영, 2012),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유난숙, 2015).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가정 요인이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 요인과 공동체 의식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며, 학교 요인으로는 또래요인, 교사요인, 학교규칙준수, 학교 적응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먼저, 또래 관계의 경우, 청소년들의 생활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또래와 공유하며, 대부분의 사회 경험이 또래와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는 만큼, 민주적인 사회적 경험, 즉 일상생활에서의 또래와의 민주적 경험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원태, 2001). 또한 또래 관계에서 높은 애착(송연주 외, 2015; 김상미, 남진열, 2011) 및 인정(장소영, 2012)을 보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와 같은 연구들은 청소년기에 있어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가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오미섭(2013)의 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교생활능력이 좋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김상미, 남진열, 2011). 이는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며 소속감을 갖고, 약속된 규범을 따르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증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학교규범에 대한 준수 정도가 공동체 의식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학교 요인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공동체 의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개인 특성(성별, 체험활동시간)과 가정 요인(부모양육태도), 학교 요인(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이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변수의 경우 시간 의존적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7개 년도에 걸친 동일표본 추적조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패널 데이터는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3개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표본은 전국에서 다단계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7,071명의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1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각 연도별 유효 표본수와 원표본 유지율은 <표 1>과 같다.

<표 1>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조사현황

	1차(2011)	2차(2012)	3차(2013)	4차(2014)	5차(2015)
표본수	2,351명	2,280명	2,259명	2,108명	2,091명
원표본유지율		97.0%	96.1%	89.7%	88.9%

2. 주요 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는 종속변수, 1수준 변수, 2수준 변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속 변수는 공동체 의식이며, 관련된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수준 변수는 시점, 체험활동 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이며, 체험활동시간은 봉사·교류·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총합한 후 자연로그를 취하였으며,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은 관련된 5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때 1수준 변수로 투입된 시간 의존적 변수인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의 경우 각 변수에 대하여 시점별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평균하여 시간 독립적 변수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차동춘, 2015). 2수준 변수는 성별,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로 모두 중1 시점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의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수 설명

변수명	측정문항	척도
종속변수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수준 변수		
시점	시점(0, 1, 2, 3, 4)	중1 ~ 고2
체험활동시간	봉사활동, 교류활동, 환경보존활동 참여시간	자연로그
교우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역문항) ·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교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학교규칙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2수준 변수		
성별	성별	0:남, 1:여
가구소득	가구연간소득(만원) (1차년도)	자연로그
양육태도(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1차년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 괄호 안의 문항은 5차년도에 측정된 문항이다.

3.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개 시점에 대하여 반복 측정된 공동체 의식과 관련 변수들을 활용하였으며, 데이터는 각 시점의 측정치가 개인에 내재(Nested)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다. 다층 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은 이와 같은 데이터의 구조를 반영하여 개인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며, 특히 종단 데이터의 특성상 표본의 이탈과 같은 결측치를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audenbush, Bryk, Cheong & Congdon, 2004; Singer & Willett, 2003; Raudenbush & Byrk, 2002).

이 연구에서는 2수준의 다층 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수준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변화함수를 추정하였으며, 2수준에서는 변화의 개인차를 추정하였다. 이때 1수준에 시점을 나타내는 변수만을 투입한 무조건 성장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 성장모형]

1수준:

$$Y_{ti} = \pi_{0i} + \pi_{1i}TIME_{ti} + \epsilon_{ti}, \epsilon_{ti} \sim N(0, \sigma^2)$$

2수준:

$$\begin{aligned} \pi_{0i} &= \beta_{00} + \gamma_{0i} \\ \pi_{1i} &= \beta_{10} + \gamma_{1i} \end{aligned} \quad \begin{pmatrix} \gamma_{0i} \\ \gamma_{1i} \end{pmatrix} \sim N \left[\begin{pmatrix} 0 \\ 0 \end{pmatrix}, \begin{pmatrix} \tau_{00} & \tau_{01} \\ \tau_{10} & \tau_{11} \end{pmatrix} \right]$$

위의 수식에서 Y_{ti} 는 시점 t 에 측정된 개인 i 의 공동체 의식을 의미한다. π_{0i} 는 중1 시점에서 측정된 개인 i 의 공동체 의식을 의미하며, π_{1i} 는 개인 i 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ϵ_{ti} 는 시점 t 에 대한 개인 i 의 오차를 의미한다. 2수준에서 β_{00} 와 β_{10} 는 고정 효과(Fixed Effect)로서 각각 초기치의 평균과 변화율의 평균을 나타낸다. γ_{0i} 와 γ_{1i} 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서 각각 초기치 평균에 대한 개인 i 의 편차와 변화율 평균에 대한 개인 i 의 편차를 나타낸다.

한편, 독립 변수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는 시간 의존적 변수(Time-Varying Covariates)로서 1수준에 투입하여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또한 1수준에 독립 변수와 시간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시간 종속적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주효과(Main Effect)와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간 의존적 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투입 모형]

1수준:

$$Y_{ti} = \pi_{0i} + \pi_{1i}TIME_{ti} + \pi_{2i}X_{2ti} + \pi_{3i}X_{3ti} * TIME_{ti} + \epsilon_{ti}$$

위의 수식에서 π_{2i} 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주효과를, π_{3i} 는 독립 변수와 시간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의미하며, 상호작용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이처럼 1수준에 시간 의존적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다층 성장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최정아, 2014; 임효진, 2012; 이주리, 2010;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어윤경, 2008).

공동체 의식을 종속 변수로 하여, 1수준에 시간 의존적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2수준에는 개인차 설명 변수를 투입한 최종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최종 연구 모형]

1수준:

$$Y_{ti} = \pi_{0i} + \pi_{1i}TIME_{ti} + \pi_{2i}(\text{체험활동시간})_{ti} + \pi_{3i}(\text{교우관계})_{ti} + \pi_{4i}(\text{교사관계})_{ti} \\ + \pi_{5i}(\text{학교규칙})_{ti} + \pi_{6i}(\text{체험활동시간})_{ti} * TIME_{ti} + \pi_{7i}(\text{교우관계})_{ti} * TIME_{ti} \\ + \pi_{8i}(\text{교사관계})_{ti} * TIME_{ti} + \pi_{9i}(\text{학교규칙})_{ti} * TIME_{ti} + \epsilon_{ti}$$

2수준:

$$\pi_{0i} = \beta_{00} + \beta_{01}(\text{성별})_i + \beta_{02}(\text{가구소득})_i + \beta_{03}(\text{양육태도})_i + \gamma_{0i}$$

$$\pi_{1i} = \beta_{10} + \beta_{11}(\text{성별})_i + \beta_{12}(\text{가구소득})_i + \beta_{13}(\text{양육태도})_i + \gamma_{1i}$$

$$\pi_{2i} = \gamma_{20}$$

...

$$\pi_{9i} = \gamma_{90}$$

다층 성장모형 분석은 무조건 성장모형, 개인차 설명변수 포함 모형, 시간 의존적 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투입 모형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분석에는 SPSS 22.0과 HLM 6.08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결측치 대체를 하지 않은 원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수준 변수들은 각 시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중심점 교정을 실시하였고, 2수준 변수들 중 이분변수인 성별을 제외한 가구소득과 양육태도는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중심점 교정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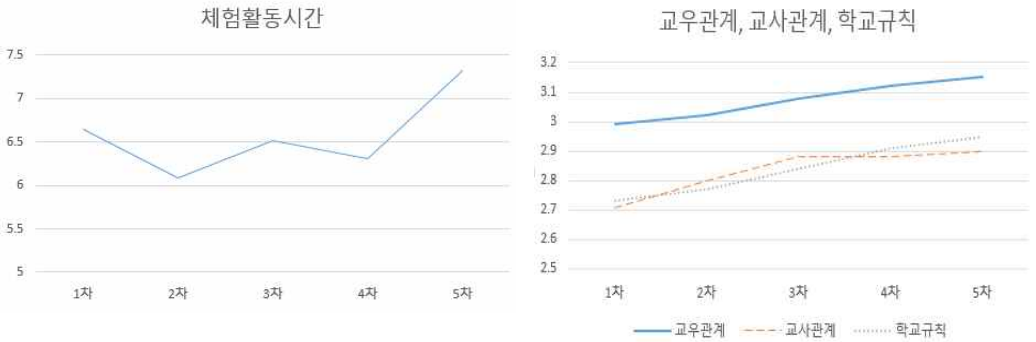
<표 3> 주요 변수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종속 변수	공동체 의식	중1(1차)	2,218	2.77	.60	.73
		중2(2차)	2,155	2.72	.60	.78
		중3(3차)	2,135	2.83	.60	.81
		고1(4차)	1,996	2.97	.51	.76
		고2(5차)	1,979	2.96	.50	.74
	체험활동시간	중1(1차)	2,208	6.65	9.67	
		중2(2차)	2,140	6.09	10.35	
		중3(3차)	2,114	6.51	9.46	
		고1(4차)	1,991	6.31	12.42	
		고2(5차)	1,969	7.32	13.96	
1수준 변수	교우관계 ²⁾	중1(1차)	2,218	2.99	.40	.55
		중2(2차)	2,155	3.02	.41	.54
		중3(3차)	2,137	3.08	.39	.54
		고1(4차)	1,970	3.12	.38	.62
		고2(5차)	1,943	3.15	.36	.63
	교사관계	중1(1차)	2,218	2.71	.67	.83
		중2(2차)	2,155	2.80	.66	.84
		중3(3차)	2,137	2.88	.63	.84
		고1(4차)	1,970	2.88	.58	.81
		고2(5차)	1,943	2.90	.57	.80
학교규칙	중1(1차)	2,218	2.73	.50	.71	
	중2(2차)	2,155	2.77	.58	.79	
	중3(3차)	2,137	2.84	.55	.79	
	고1(4차)	1,970	2.91	.50	.76	
	고2(5차)	1,943	2.95	.48	.75	
2수준 변수	성별	2,218	.50	.50		
	가구소득	2,218	8.16	.80		
	양육태도	2,218	3.01	.65	.82	

2) 교우관계 구인의 경우, 5개의 문항 중 1개의 부정 문항을 역코딩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구인을 측정하였다. 이는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이 혼합된 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ilotte, Gable, 1990).



[그림 1] 공동체 의식의 시점별 평균



[그림 2]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의 시점별 평균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특성은 <표 3>과 같으며, [그림 1]과 [그림 2]는 종속변수와 1수준 변수의 시점별 평균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종합적으로, 공동체 의식의 경우 중1 시점에서 중2 시점에 이르는 동안에는 공동체 의식이 감소하지만, 중2 시점부터 고2 시점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수준 투입 변수의 경우, 체험활동시간은 감소와 증가가 반복된 반면,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수준 투입 변수의 경우, 중1 시점을 기준으로 남녀의 비율은 1:1, 연평균 가구소득(로그)은 8.16만원,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평균 3.01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인지 묻는 문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응답이 평균적으로 '그런 편이다'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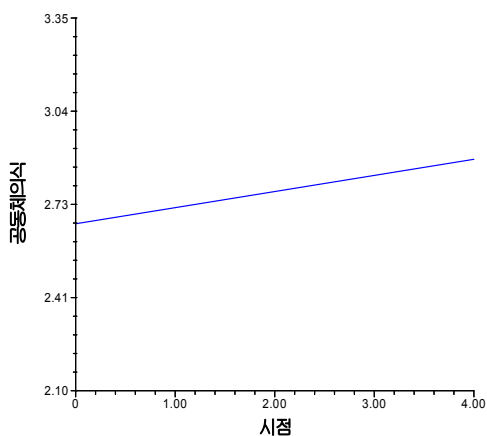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인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른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선형 성장모형을 기초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기초모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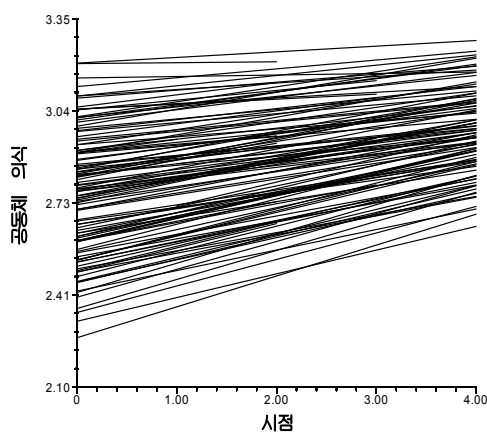
구분	모수	기초모형	
		계수	S.E
고정 효과	초기치(π_{0i})	2.724***	0.011***
	변화율(π_{1i})	0.064***	0.003***
분산			
무선 효과	1수준		0.198***
	공동체 의식 초기치(γ_{00})		0.162***
	공동체 의식 변화율(γ_{10})		0.003***

주: *p<.05, **p<.01, ***p<.001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고정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은 평균 2.724이고, 한 학년씩 진급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평균적으로 0.064씩 증가하여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는 2.98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공동체 의식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선효과 분석 결과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공동체 의식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는 전체 표본 중 5%를 무선 표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개인 변화 궤적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이를 통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



[그림 4] 공동체 의식 변화의 개인차

3) 시점 변수를 제공한 가속도항을 투입하였을 경우, 1차항과 2차항의 상관계수가 -0.971로 큰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예상되어 선형 성장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표 5> 공동체 의식 변화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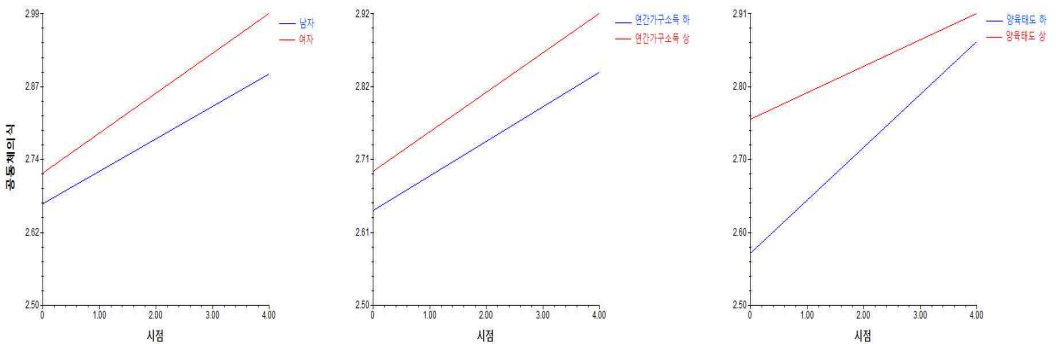
구분	모수	기초모형		연구모형1		연구모형2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초기치(π_{0i})	절편	2.724***	.011	2.683***	.015	2.670***	.016
	성별			0.080***	.022	0.052***	.019
	가구소득			0.050***	.014	0.028***	.012
	양육태도			0.212***	.017	0.108***	.015
변화율(π_{1i})	절편	0.064***	.003	0.058***	.005	0.054***	.005
	성별			0.014***	.007	0.012***	.006
	가구소득			0.003***	.004	0.004***	.004
	양육태도			-0.035***	.005	-0.021***	.005
고정효과	체험활동시간(π_{2i})					0.019***	.007
	교우관계(π_{3i})					0.202***	.022
	교사관계(π_{4i})					0.150***	.014
	학교규칙(π_{5i})					0.200***	.018
	체험활동시간X시간(π_{6i})					0.007***	.003
	교우관계X시간(π_{7i})					0.026***	.010
	교사관계X시간(π_{8i})					-0.002***	.006
	학교규칙X시간(π_{9i})					-0.014***	.007
			분산		분산		분산
1수준 잔차		0.198***		0.198***		0.186***	
무선효과	공동체 의식 초기치(γ_{00})		0.162***		0.139***		0.087***
	공동체 의식 변화율(γ_{10})		0.004***		0.003***		0.001***

주: *p<.05, **p<.01, ***p<.001

<표 5>는 기초모형,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모형 1의 분석 결과, 여학생일수록, 연간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 시점의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의 변화율은 여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태도가 애정형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 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0.08만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차이가 0.014만큼씩 증가하게 되며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서 남녀 공동체 의식의 차이는 평균 0.136이 된다. 또한, 연간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중학교 1학년 시점의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변화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중학교 1학년 시점의 공동체 의식은 높게 나타났지만, 변화율에 부적영향을 미치므로 평균변화율보다 낮게 공동체 의식이 증가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동체 의식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2는 시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변수와 각각의 변수와 시간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시간 의존적 변수를 통제된 후에도 성별, 가구소득, 양육태도가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 성별, 양육태도 역시 공동체 의식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다음으로 1수준에 투입한 시간 의존적 변수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변수는 모두 각 시점에서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활동을 많이 할수록,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와 시간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의 시점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체험활동시간과 교우관계가 시점과의 상호작용효과로 인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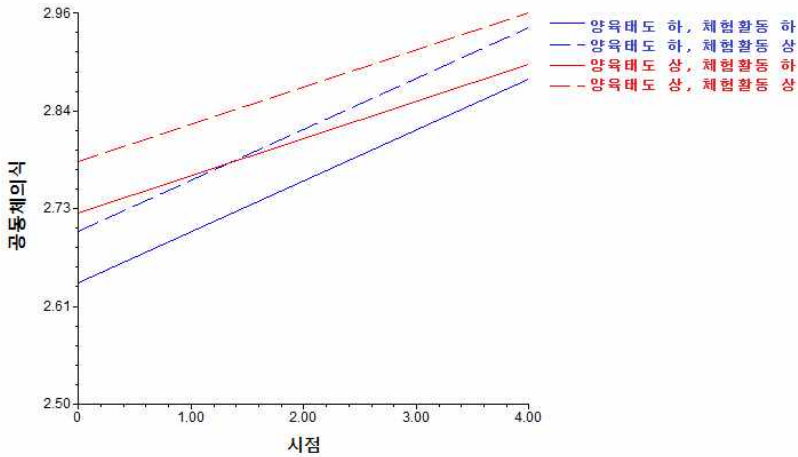


[그림 5] 성별, 연간가구소득, 양육태도 집단별 공동체 의식의 변화

[그림 5]와 [그림 6]는 <표 5>의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5]에서 성별, 양육태도, 가구소득 기준 집단별 공동체 의식의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모형 2에서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남녀 집단별 그래프와 연간가구소득 상하 집단별 그래프에서, 각 집단의 공동체 의식의 초기치의 차이가 유지되며 평행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동체 의식의 변화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 양육태도의 경우, 부모에게 더 많은 애정을 받는다고 인식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초기의 공동체 의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6]에서 부모 양육태도가 동일했던 집단 내에서도 체험활동시간에 따라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모양육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애정을 덜 느꼈지만 체험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한 경우, 부모 양육방식이 애정적이고 체험활동에 덜 참여하였던 청소년들에 비하여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양육태도, 체험활동시간 집단별 공동체 의식의 변화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의 중1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1수준에 시간 의존적 변수를 투입한 다층 성장 모형을 적용하였고, 청소년 2,218명을 대상으로 1차 년도(2010)에서 5차 년도(2014)의 5개 시점에 걸쳐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기간 동안 선형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김성훈, 2015; 문수경, 2015)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의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모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적으로 증가하지만, 출발점과 변화 정도가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중 1시점의 영향요

인으로는 성별, 가구소득,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변화율의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에 성별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연간가구소득)가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김성훈, 2015; 김위정, 2012), 여학생이거나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평균 변화율보다 낮은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 해석에 있어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었던 청소년들이 공동체 의식의 초기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시간 의존적 변수들의 경우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이 각 시점에 대하여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시간과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의 경우,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박현정 외, 2015; 김혜진, 2014; 박재숙, 2010; 고관우, 남진열, 2011)와 일치하나, 체험활동의 형식적 측면인 활동 시간은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과(김성훈, 2015; 박주현, 이태자, 2015)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교우관계와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의 경우, 청소년의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송연주 외, 2015; 장소영, 2012; 김상미, 남진열, 2011)와 일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체험활동시간 및 교우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체험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으며, 시간과의 상호작용효과로 인하여 체험활동시간 및 교우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체험활동시간의 경우, 봉사·교류·환경보존 활동에 참여는 다양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감을 증진시켜 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체험활동의 경험이 누적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 내에서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연습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은 발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은 입시를 앞두고 학교 및 학원에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여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교우관계의 영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관계 및 학교규칙 준수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하였다. 이는 교우관계와 체험활동 시간의 경우와 달리, 교사관계와 학교규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의 중1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시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선형적

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는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기에 발달할 수 있는 요인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의 심화되는 개인주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와 공동체의 개념 및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청소년들의 높은 지식수준에 비하여 공동체에 대한 정서, 태도 및 실제 참여수준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한국교육개발원, 2010)을 고려할 때,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체험활동시간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또는 교우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우관계를 형성 및 회복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김도연, 양혜정, 2013; 김소영, 2013)는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과 같은 변수가 반복 측정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값으로 가정하고 변수의 초기 측정치 혹은 평균값을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년 및 학교급에 따라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변수를 시간 의존적 변수로 투입함으로써 반복 측정된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시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공동체 의식의 발달 궤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선행연구는 가족구성(최후남, 김태균, 2012) 및 다양한 형태의 양육태도(유난숙, 2015; 장소영, 2012)가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애정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만을 고려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변화할 수 있지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 구조의 한계로 시간 의존적 변수로 취급하지 못하고 중 1시점의 초기 측정치만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는 스포츠 활동, 즉 건강·보건활동(신창호, 김옥주, 2013; 나봉순, 홍춘표, 이상진, 2007)과 동아리 활동(강효민, 2003; 강혜진, 김정섭, 2012)이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나타내지만, 이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의 범주를 교류·봉사·환경보존 활동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체험활동을 반영하여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2013).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고관우, 남진열(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권혜원(2004).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교육부(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증보편**. 세종: 교육부.
- 김도연, 양혜정(2014). 청소년기 휴대폰 의존의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169-197.
- 김소영(2013).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변화 추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제 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893-907.
- 김상미, 남진열(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선숙, 안재진(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성훈.(2015). 청소년의 봉사 활동과 공동체 의식: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237-259.
- 김영춘(2014). 또래애착,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321-331.
- 김옥순(2006). 서울시 거주 중·고생의 공동체 의식 조사연구: 인터넷 이용 행태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연대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7(3), 215-234.
- 김원태(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1), 49-88.
- 김위정(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2010). **한국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RR2010-1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철, 김은정(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III: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07-R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진(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유형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8),

195-214.

- 문수경(2015). 청소년 봉사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박가나(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재숙(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정서(2012). 청소년의 정보추구 정치참여 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0), 45-71.
- 박주현, 이태자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의 참여시간과 참여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3(2), 237-248.
-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2008). 사교육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평가연구**, 21(4), 107-127.
- 박현정, 이진실, 이용석(2015).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3(2), 235-257.
-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 어윤경(2008). 청소년의 희망직업 지위와 진로 기대감 변화추이. **교육학연구**, 46(4), 81-108.
- 오미섭(2013).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 오지원(2013). 학급 공동체 의식이 집단 따돌림 관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주변인 유형(방관자, 가해동조자, 피해자 방어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우유라, 노충래(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유난숙(2015). 중산층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방식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3(3), 319-329.
- 이혜영(1997).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3(2), 113-134.
- 이주리(2010). 아동의 학업성취 발달궤적의 대한 사교육의 시간 의존적 효과. **아동학회지**, 31(6), 1-13.
-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지역 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14-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14-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효진(2012). 중고생의 영어 및 과학교과 흥미의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교육학연구**, 50(3),

151-175.

- 장소영(2012).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이 초기청소년의 행복감과 공동체 의식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장혜림, 정익중(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 33-61.
- 조명주(2007). 학습자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차동춘(2015). 중학교 학업 성취도에 성장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교원교육**, 31(3). 247-272.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4. 22).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 최정아(2014). 초기 청소년기 공격성의 발달적 변화와 가족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294-307.
- 통계청(2013). 2013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 통계. 통계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 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대동, 오경희(2013). 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 의식이 학교폭력 자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3(4), 207-235.
- 한은영, 김미강(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3, 95-124.
- 허인숙, 이정현(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9,40), 443-472.
- 홍재화(2004)초등학교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진구, 허효주, 안현미(20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연구보고서 13-R14-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ncic.re.kr.
- Chavis, D. M., & Pretty, G. (1999). Sense of Community: Advances in measurement and applic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635-642.
- Crockett, L. J., & Crouter, A. C. (2014). *Pathways through adolescence: Individu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social contexts*. Psychology Press.
- Fletcher, Elder, & Mekos. (2000).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1), 29-48.
- Hart, Atkins, & Ford (1999). Urban america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moral

- Ident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54(3), 513-530.
- Long, D. A. & Perkins, D. D. (2007). Community social and place predictors of sense of community: A multilevel and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5), 563-581.
- Mannarini, T., & Fedi, A. (2009). Multiple senses of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2), 211-227.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Pilotte, W. J., & Gable, R. K. (1990). The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item stems on the validity of a computer anxiety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0(3), 603-610.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Vol. 1). Sage.
- Raudenbush, S., Bryk, A., Cheong, Y. F., Congdon, R., & Du Toit, M. (2004). *HLM 6*. Lincolnwood,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Rosa, E. M., & Tudge, J. (2013). Urie Bronfenbrenner's theory of human development: Its evolution from Ecology to Bioecology. *Journal of Family theory and Review*, 5(4), 243-258.
- Singer, J. D., & Willett, J. B. (2003).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Modeling change and event occurr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논문접수 2015년 11월 3일 / 1차 심사 2015년 12월 7일 / 게재승인 2015년 12월 21일

* 박현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국제비교분석, 중단자료의 분석, 다층자료 분석 등이다.

* E-mail: hjp@snu.ac.kr

* 김전옥: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다층자료 분석, 중단자료 분석, 국제비교분석 등이다.

* E-mail: okgreen@snu.ac.kr

* 손윤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다층자료 분석, 중단자료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 등이다.

* E-mail: first0423@snu.ac.kr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Trend of the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ce and its Predictors*

Park, Hyun-Jeong**

Kim, Jun-Ok***

Son, Yoon-Hee

This study analyzed the longitudinal trend of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ce and the predictors of the change. For the analysis, the middle school cohort data from the Korean Youth and Children Panel Survey was used. The subjects were 2,218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d been measured repeatedly over five years from 2010 to 2014 and multi-level growth model was applied. The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increased linearly over the years and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initial status and the change rate were significant. Second, the initial status increased as the family income increased and as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was positive. The change rate was significant and positive for female students and the good relationship with parent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change rate. Third, at each time point, the influences of the hours of activities in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peer relationship on the sense of community were significant and these relationships changed as the time goes on. The influences of the relationship on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the observation of school regulations were significant at each time point as well, however, these relationships didn't change over tim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 of the longitudinal trend of sense of community and policy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Hours of Activities in Soical Participation, Multi-level Growth Model, Time-Varying Covariates

* This work was revised after being presented at the 5t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 First autho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Master co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